

# 근대 초기 파리 만국박람회(1900) 「한국관」의 건축과정과 초기설계안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Korean Pavilion in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진경돈\* / Jin, Kyung-Don  
박미나\*\* / Park, Mi-N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Korean Pavilion was established at the 1900 Paris Exposition Universelle,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design features of the pavilion building. At that time, even though Korea faced difficulty due to lack of experience in the world exposition and funds, Korea attempted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ultural event by establishing the Korean Pavilion under an official contract with assistance of the French Government. Moreover, the Pavilion shows significant architectural features which had not been shown until then in terms of the structure and design of the pavilion building. In this connection, in this thesis, among others,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Korean Pavilion" was established at the 1900 Paris Exposition Universelle,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as well as the process and features of the draft design prepared at an early stage by Baron Delort de Gleon on the part of France among the above parties to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the Korean Pavilion, which have never been addresse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or interior due to lack of existing data, will be clearly studie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s. According to analysis of the study, it reveals that the representation method for the Korean tradition of Korean Pavilion designed by Baron Delort de Gleon was based on the Chinoiserie, the style widely seen in Europe. In addition, Delort de Gleon's commerce-oriented concept is integrated into the design of the Korean Pavilion as well.

키워드 : 한국근대건축,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그레옹 남작, 이집트관, 시노와즈리  
Keywords : Korean Modern Architecture,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Korean Pavilion, Baron Delort de Gleon, Chinoiseri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에 있어, 「한국관」의 설립에 관한 역사적 경위 및 건축의 과정 그리고 전시관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대 초, 한국(당시 조선)이 전시관을 건축하여 세계박람회에 참가했던 것은, 1893년 미국 시카고 만국박람회(1893 Chicago World

Columbian Exposition)가 최초였으며, 이때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던 주미 조선공사관원들과 조선 주재미국공사 서기인 알렌(H.N. Allen, 한자명 案連, 1858-1932)의 도움에 의해 테마전시관 내부에 작은 규모의 조선전시관을 만들어 조선의 특산물을 전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는 정식 「한국관」을 설치하여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품전시관」이라는 거대한 테마관 안의 한 모퉁이에 양면이 트여 있는 가설건축 형태의 약 899ft<sup>2</sup>의 작은 규모로 설치된 것에 불과했다.<sup>1)</sup>

이후, 국왕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다음, 본격적으로 세계에 대한제국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그 본격적

\* 정회원, 백제예술대학 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건축학전공 연구원, 공학박사  
\*\* 정회원, 동경대학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건축학전공 석사과정

1) 이만식, 콜럼비아 세계박람회 조선전시실에 관한 연구, 콜럼비아 세계박람회와 한국, 백산자료원, 2006, pp.84-96.

인 시도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였다. 당시 한국은 박람회에 대한 경험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기도 했지만, 프랑스 측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박람회 측과 계약하여 「한국관」을 설치하는 등 세계문화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였으며, 전시관의 건축물 구성이나 디자인 등에서도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중요한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시 「한국관」은 프랑스 측과 한국 측의 서로 다른 건축 주체에 의해 초기계획안과 실현된 계획안이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의 초기계획안은 프랑스 측의 「한국관」 건립 파리위원회의 총무대원인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된 것으로서, 프랑스 측의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다소 왜곡된 이미지와 상업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독특한 설계안이었던 반면, 실현된 계획안은 경복궁 근정전을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서, 당시 대한제국 측 건축위원회 부총재대원인 민영찬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조선의 전통목수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자료의 부족 등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과정 중, 상기 프랑스 측의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에 의해 작성된 초기 설계안의 건축과정 및 디자인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20세기 초두 해외에서의 역사상 최초의 건축물이었던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은 물론, 당시 조선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측의 조선전통건축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건축 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최근까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한국관」에 대한 건축분야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술사 분야에서 전시회 참가물품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2)</sup>와 동아시아 지역연구분야에서의 1900년 파리박람회에의 한국의 참여와 국제적 정치역학관계를 다룬 연구<sup>3)</sup>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관」의 전시관 자체에 대한 건축적 연구는 최근 본 연구자에 의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기초문헌연구<sup>4)</sup>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본 연구자의 기초문헌연구에 근거하여

전시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건축경위와 과정, 그리고 초기설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로서는,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 관련 프랑스 정부 부서간 왕복 문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관」의 건립 경위와 건축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당시의 프랑스 정부 부서간 왕복문서들로는, 프랑스 국립고문서관이 소장한 파리박람회 한국관에 대한 정부문서<sup>5)</sup>와 프랑스 외무성 고문서국이 소장한 외무성문서<sup>6)</sup>,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관련문서<sup>7)</sup>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는 최근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선별적으로 번역, 출판되었다.<sup>8)</sup> 본 연구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설립의 역사적 배경과 건축과정 및 초기설계안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상기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출판된 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로 삼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관련문서는 프랑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근대초, 만국박람회와 한국

### 2.1. 1900년 이전, 조선과 박람회

1900년 이전, 조선은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늦게 박람회에 참가하였는데, 당시 박람회에 대한 조선 측의 기록으로는 1884년 『한성순보』에 런던박람회에 대한 기사<sup>9)</sup>가 실린 것과, 1889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서구의 박람회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sup>10)</sup>이 대표적이다. 조선 정부가 최초로 해외 박람회에 참관하여 관람했던 것은, 1881년 일본 조사시찰단(일명, 紳士遊覽團)의 일행이었던 박정양과 민중묵이 처음으로, 이들은 동경에서 열린 제2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를 참관한 바 있다. 1883년에는 조선보병사의 일원으로 미국을 시찰한 전권대사 민영익이 수행원들과 함께 보스턴 박람회(American Exhibition of Products, Arts and Manufactures of Foreign Nations)를 참관하기도 했다.<sup>11)</sup>

이후, 조선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왕 고종의 주도로 변화하는 국외의 정치, 문

5)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Paris. F/12/4224, F/12/4357.

6)Archives du 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circulaires diverses E27 490 C-D, 1894-1901.

7)Bibliothèque Nationale, Fol V 4222.

8)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국사편찬위원회, 2001.

9)한성순보, 1884년 2월 21일자(음력), 제15호.

10)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4, pp.469-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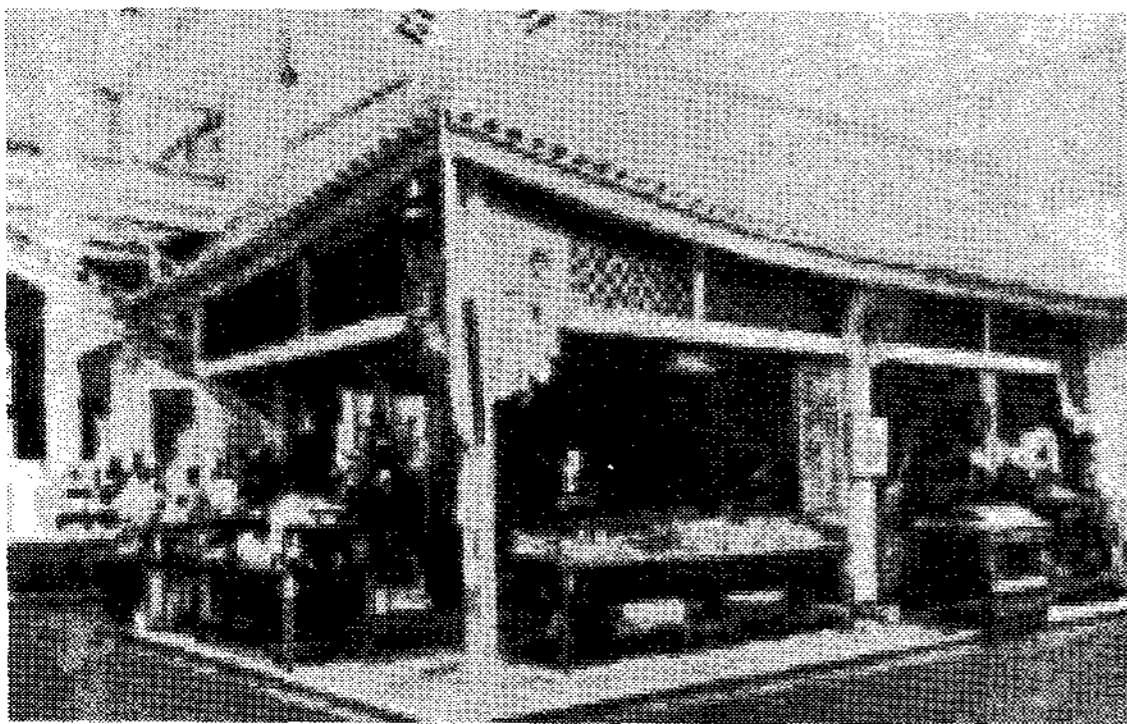
11)변종화, 1883년의 한국사절단의 보스턴 방문과 한미과학기술 교류의 발단, 한국과학사학회지(제4권제1호), 1982년 9월.

2)김영나, 서양과의 첫 만남,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pp.13-56.

3)Daniel Kane, Display at Empire's End: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i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4. No.2. 2004.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pp.41-66.

4)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Pavilion at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in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5th October 2006. Daegu. pp.522-527.

화의 장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시카고 박람회는, 1876년의 필라델피아 박람회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규모 박람회로서, 유럽 문명이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진보와 번영의 단계를 보여준 획기적인 박람회로 평가되고 있다.<sup>12)</sup> 당시 「조선관」의 전시규모는 상당히 작아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정식 전시관이라기보다는 「제조와 교양관」 내부에 위치한 테마전시관의 일부로서, 면적은 899ft<sup>2</sup>로 일본이나 중국과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였다.<sup>13)</sup> 당시의 「조선관」은 양면이 열린 코너에 위치해 있었고 가설건물 정도로 빈약하여, 이를 참관했던 당시 정부고관 윤치호는 타국 전시관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조선관」에 마음이 아팠다고 기록할 정도였다.<sup>14)</sup> 당시의 전시장 사진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가마, 찬장, 식기, 동제 탁자, 짚신과 가죽신발, 화로, 장기관, 연, 도자기 류가 보이며, 전시실 안에는 자수 병풍, 장군의 의복, 남성의 관복과 장수의 군복 등이 전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5)</sup> <사진 1>



<사진 1> 1893년 시카고박람회 조선관

## 2.2. 대한제국의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참가

1851년 5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만국박람회가 개최된 이래, 영국과 프랑스 등의 강대국들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주의의 우위를 세계에 드러내고,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고무되어, 당시까지 세계에서 유래가 없던 막대한 규모의 전시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였다. 당시, 파리는 유럽 대륙의 중심으로서 문화뿐 아니라 근대과학기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자국의 우수한 문화, 기술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박람회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1855년 제1회 파리 만국박람회가 그 최초였다. 이후, 1867년 및 1889년에 파리 만국박람회가 있었고, 1900년에는 4

12)김영나, Op. Cit., p.16.

13)고종순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1월24일자.

14)윤치호 일기, 1893년9월24일 및 동년 9월28일자 기록;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한국외교,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pp.295-296.

15)김영나, Op. Cit., p.31; 이민식, 미시건 호반 세계박람회에서 전개된 개화문화의 한 장면, 콜럼비아 세계박람회와 한국, Op. Cit., pp.69-71.

번째의 파리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1900년 파리박람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으며, 정식으로 「한국관」을 세워 조선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20세기를 처음 장식하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행사로서, 19세기의 100년간의 산업, 예술, 과학기술을 회고하고 그로부터 20세기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sup>16)</sup> 주요 전시장은 1855년, 1889년 파리박람회에서 사용되었던 영구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함과 동시에, 알렉산드르 3세 다리(La pont Alexandre III), 그랑 팔레(Le grand palais), 뽀티 팔레(Le petit palais) 등의 대규모 전시관을 신축하기도 했다. 대지는 549에이커, 출품자는 83,000인, 총 입장객은 5,100만명, 경비는 11,920~11,650만 프랑이었으며, 수입은 12,630만 프랑이었다. 전시기간은 총 210일이었으며, 회장은 1889년 파리박람회 부지로 사용되었던 샹 드 마르스, 트로카텔로 지역 등과 샹젤리제 가로, 반센느 공원, 세느 강 좌안 등이 더 첨가되어 총 7개소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전시구역으로 계획되었다.<sup>17)</sup>

당시 조선은 1893년 프랑스 측으로부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권유받게 되었으며, 참가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프랑스 측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하, 구체적인 박람회 참가 경위와 「한국관」의 건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축과정

### 3.1. 「한국관」의 건축경위

#### (1) 조선의 박람회 참가결정

1893년 경, 프랑스는 1900년 파리박람회에 조선의 참가를 원한다는 뜻을 국왕인 고종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당시, 조선주재 프랑스 영사 프랑탱이 본국의 외무성장관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조선의 박람회 참가를 권유하기 위해 1889년 파리박람회에 관한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18)</sup> 그 내용을 보면, 조선은 이미 1893년 미국 시카고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1900년 파리박람회에도 참가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

16)中村惠三, 1900年パリ万国博覽會の建築, 足利工業大學出版, 1987, p.2.

17)Ibid., pp.3-8.

18)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 "Correspondence Commerciale/Seoul/1893-1901", 7 May 1893, Consul Frandrin to Ministre de Affaires Etrangères; 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 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177.

1893년 5월 7일자 공문(조선주재 프랑스영사 Frandrin → 프랑스 외무성장관. 이하, 본 논문에 게재되는 모든 프랑스 정부간 공문의 표기 및 출전은 한국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 발행한 상기 자료의 표기에 따르며, 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공문 및 문서는 원문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고 있다. 다만, 그는 당시 조선정부의 재정상의 악화로 인해, 미국 시카고 박람회의 사례와 같이, 전시물의 매입비, 파리로 가져갈 화물과 인원의 운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조선을 도와야 할 것을 프랑스 영사가 외무성 장관에게 제안하고 있다. 당시, 조선은 프랑스 등의 유럽제국과 국교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일체 공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에 대한 프랑스의 참가 독려는 그 후 몇 차례 더 있었으며<sup>19)</sup>, 공식적인 참가 요청서가 조선에 전달된 것은 1896년 1월이었다.<sup>20)</sup> 『구한국외교문서』에 의하면, 조선정부에 프랑스 측의 공식문서가 접수된 것이 1896년 1월이었으며<sup>21)</sup>, 조선은 이에 대해 외부대신 김윤식의 이름으로 박람회 참가의 의향을 확인해 주었다.<sup>22)</sup> 프랑스 측의 공문에 의하면, 조선 주재 영사국의 르페브르(A. Lefevre)가 프랑스 외무성장관에게 조선 측의 결정을 보고하였으며<sup>23)</sup>, 이후 프랑스 외무성 영사는 1900년 파리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던 자국의 통상성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조선 측의 참가 결정을 확인하고 보고하게 된다.<sup>24)</sup> 이렇게 해서, 조선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참가할 것을 공식화하고 프랑스와 함께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 (2) 박람회 대한제국 측 및 프랑스 측 위원들의 선정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박람회를 위한 대표 선정에는 많은 난항이 있었다.<sup>25)</sup> 결국, 박람회 전시를 위한 조직위원의 선정 및 결정은, 1898년 6월 3일, 프랑스공사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가 자국의 외무성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프랑스 측의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을 대표로 하는 한국위원회 및 서울사무소가 설치될 것을 문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결정되기에 이른다.<sup>26)</sup> 이 문서에는, 프랑스

측의 루리나(C. H. Roulina)<sup>27)</sup>가 파리주재 대한제국 총영사로 임명되었으며, 그레옹 남작<sup>28)</sup>에 대한 간단한 소개사항이 실려 있고, 그레옹 남작이 파리 박람회 「한국관」의 건축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에 대한 허가요청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플랑시 공사는 고종에게서 그레옹 남작의 대표직을 허가 받았으며, 1898년 5월 23일자로 그를 「한국관」의 설치 및 운영자로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이어, 관련위원으로는, 파리주재 대한제국 총영사인 루리나(C. H. Roulina), 의사이자 동양학자인 멘느(Edme Edouard Mene)<sup>29)</sup>, 전직 조선 주재 프랑스 영사관의 통역 서기관으로 플랑시 공사의 지휘 하에 있었던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sup>30)</sup> 등이 한국위원회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박람회에 출품할 조선산 수집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사무소원으로는 소장 민병석, 부소장 민영찬, 그리고 고영근, 윤덕영, 이인영, 이근배, 정영두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sup>31)</sup> 상기의 조직위원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sup>32)</sup>

26)Ibid., pp.185-186. 1898년 6월 3일자 공문(주한 프랑스공사 Plancy → 프랑스 외무성장관).

27)Paul Gers, 1900. Corbeil: E. Crete, p.206; Daniel Kane, Op. Cit., p.51. 루리나(C. H. Roulina)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프랑스 측 문헌에서도 그다지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파리에서 다이아몬드 세공업 운영하던 인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과 1900년 여름까지 파리주재 대한제국의 영사로서 프랑스와 대한제국과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루리나가 어떤 경위로 대한제국의 총영사가 되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

28)Daniel Kane, Op. Cit., p.54.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프랑스 측의 문헌에서는 그다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파리주재 루리나(C. H. Roulina) 총영사에 의해 「한국관」의 건립 및 운영자로 발탁되었다는 것과, 1889년 파리박람회 때 이집트관을 설치, 운영했던 인물로서 알려져 있다.

29)Ibid., p.51. 멘느(Edme Edouard Mene)는 의사로서 동양문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특히 일본예술품의 열광적인 수집가였다고 한다. 1913년 사망하기까지 파리의 프랑스-일본협회(Societe Franco-Japonais de Paris)의 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30)Ibid.,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은 플랑시 공사의 대학(E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후배로서, 같은 중국어를 전공했다. 이후, 북경, 천진, 동경, 서울(1890-1892) 등지의 프랑스 영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으며, 동양서지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두어 후에 유명한 언어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31)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 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190.

32)이후, 명단의 재확정에 대한 사항이 1898년 11월 25일, 1899년 7월 2일, 1899년 9월 5일, 1900년 2월 1일자의 문서에 의해 다시 확정되게 된다. 특히, 1899년 7월 2일자 문서와 1899년 9월 5일자의 문서에 의하면(1899년 7월 2일자 공문(1900 만국박람회 한국지부 → 프랑스 외무성장관) 및 1899년 9월 5일자 공문(파리주재 한국 총영사 Roulina → 프랑스 외무성장관))한국 외부대신 박계순에 의해 완벽한 명단이 임명, 통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자료로는, 『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Op. Cit., p.329(1897년 6월), p.385(1898년 5월), p.398, 407(1898년 6월), p.575.(1899년 9월)에 동일한 내용의 위원임명 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19)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 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177-178. 1893년 7월 12일자 공문(프랑스 외무성 통상과 → 프랑스 상공부장관 및 기술교육국)및 1894년 6월 22일 공문(프랑스외무성 통상과 → 프랑스 상공부장관).

20)Ibid., p.179. 1896년 1월 28일자 서울발 상업전보 동봉서류내 전보번역문(조선외부대신 김윤식 → 주조선 프랑스영사국 A. Lefevre)

21)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283. 1896년 1월 7일자, 파리 만국박람회 참가요망의 건.

22)Ibid., p.284. 1896년1월27일자, 파리 만국박람회 출품통보의 건

23)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179-180. 1896년 1월 28일자 공문(주조선 파리박람회 사무소 → 프랑스 외무성장관).

24)Ibid., pp.180-181. 1896년 4월 4일자 공문(프랑스 외무성 통상과 → 프랑스 통상성장관)

25)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Op. Cit., p.320. 1897년 1월자. 「구주6개국특명전권공사 민영환 파견의 건」. 당시 외부대신 이완용은 민영환을 유럽 6개국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고, 박람회에서의 전시를 위해 프랑스 측이 건축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플랑시 공사는 실제로 대한제국을 위한 부지에 별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이완용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룬 채, 다만 민영환이 전권공사로서 이 문제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임무를 맡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환이 곧 공사직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전시회의 조직과 기타 현안은 다시 표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표 1> 1900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 건축위원회

위원회	명칭	이름	지위/직업
프랑스 파리 위원회	위원장	C.H. Roulina	파리주재한국총영사
	위원	E.E. Mene	의사
		Maurice Courant	학자/공사관원
		Polyeucte Vidal	군인/지휘관
	총무대원	Delort de Gleon	남작
	보좌원	A. Tremoulet	Gleon의 보좌역
총서기	Leon Beaup		
한국측 준비 위원회	총재대원	민병석	정2품/의정부참찬
	부총재대원	민영찬	종2품/법부참판
	위원	고영근	종2품/중추원의관
		윤덕영	정3품/봉상사부제조
		이인영	정3품/군부외국과장
		이근배	종3품/중추원의관
	정영두	정6품/관원	

이로서, 한국 측과 프랑스 측 양국의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 건립을 위한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으며, 전시관 건립을 위한 계획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3.2.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설계이념

#### (1) 그레옹 남작의 계획구상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이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을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프랑스 공사가 자국의 외무성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sup>33)</sup>, 파리주재 총영사 루리나의 소개로 그레옹 남작이 「한국관」을 건립, 운영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아마도 그레옹 남작이 1889년 파리박람회 때 이집트관을 건립,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98년 11월 25일 그레옹 남작이 박람회 개발총국장 들로네 벨빌(Delaunay Belleville)에게 보낸 문서(의견서)에 의하면, 그레옹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한국관」을 건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국왕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sup>34)</sup>

이 의견서에는 당시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에 대한 건축구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그레옹 남작은 「한국관」을 「공식적인 부분」과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의 두 가지 테마로 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공식적인 부분」이란, 조선의 산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식 전시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국정부의 수집품,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작품들, 그리고 농업, 광업, 산업, 상업, 기타 등등”의 특별한 조선의 생산품을 전시하는 주 전시관을 의미한다. 그레옹 남작은 이 전시관을 커다란 별관, 즉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 형태로 구성할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이 전시관에서 전시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완성도가 높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두 번째의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이란, 조선의 활기에 넘치는 골목, 즉 인천 제물포 조계지 부근에 형성된 조선의 골목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길에는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집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공예 생산품을 팔기도 하며, 북적거리는 찻집과 노점상, 그리고 광대들, 기타 등등 매우 다양하고 이국적이며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 주민들로 차있는 활기찬 길”을 재현할 것이라고 그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물포 길의 생활은 여러 행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제물포 길을 재현하여 “빈번하게 열리는 한국의 축제를 재현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위한 전시관의 모습은, “축제에 어울리는 길의 형태로 표현되며, 이러한 형태는 제한된 장소에서 관람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6)</sup>

이와 같이, 「한국관」에 대한 그레옹 남작의 구상은 건축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레옹 남작이 조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건축 및 도시구조물이 「한국관」의 모델로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델들 중 하나는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으로서, 이는 공식적 부분인 본관의 건축모델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인천 제물포 조계지 부근의 변화한 조선의 이국적인 골목길로서, 이는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의 모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관」의 건축모델들에 대해서는, 그레옹의 1889년 파리박람회 때의 이집트관에 대한 설계구상과 1900년 박람회 때에 그레옹에 의해 설계된 건축도면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 (2) 만국박람회 총재위원과 그레옹 남작의 협약내용

드디어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에 대한 구상은 도면으로 작성되어 파리 만국박람회 측의 승인과 허가를 받게 된다. 1899년 6월 1일 프랑스 정부간 문서에 의하면, 박람회 외국정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사무소 소장의 조사 및 서명 하에,

35)Ibid., p.256. 「한국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인데, 하나는 공식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전시관은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 양식을 그대로 재현한 커다란 별관으로서 한국정부의 수집품과,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작품들, 그리고 농업, 광업, 산업, 상업, 기타 등등의 모든 생산품을 전시합니다. (중략) 이 전시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서, 또한 완성도가 높은 전시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6)Ibid., p.257. 「전시관의 두 번째 부분은 한국의 활기에 넘치는 골목, 즉 제물포에 있는 길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집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공예 생산품을 팔기도 하며, 북적거리는 찻집과 노점상, 그리고 광대들, 기타 등등 매우 다양하고 이국적이며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 주민들로 가득한 활기찬 길입니다. 한국인의 생활은 여러 행사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이 제물포 길을 통해서, 다양한 등과 장식물들을 가지고 매우 빈번하게 열리는 한국인의 축제를 재현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은 이 전시관의 모습을 길 형태로 계획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제한된 장소에서 전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후략)」

33)상기 주29. 참조.

34)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 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190-191. 1898년 11월 25일자 공문(그레옹 남작 → 박람회개발총국장 벨빌)

프랑스 한국지부의 대표가 1899년 5월 24일 제출한 도면들이 1899년 1월 18일의 통고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개발총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책임 건축사에 의해, 단면도는 없지만 방재위원회의 지시를 조건으로 도면을 승인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sup>37)</sup> 다시 말하면, 그레옹 남작에 의해 제안된 구상이 적어도 1899년 1월에는 파리박람회 조직위원회 개발총국장에게 통고되었고, 도면이 작성되어 동년 5월 24일에 도면 일체가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1일에 「한국관」에 대한 건축이 허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899년 6월 15일자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레옹 남작과 프랑스 통상성 장관 간에 매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관」의 구성과 건축양식 및 전시내용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그레옹 남작의 계획구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협약서의 제1항에는 그레옹 남작의 구상이 거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며<sup>38)</sup>, 제2항에는 각 전시관의 전시물품과 전시방식, 전시관의 양식, 그리고 구체적인 대지면적과 기타 건물의 면적이 함께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9)</sup> 그리고 나머지 조항(3항~9항)은 박람회의 일반적인 규정과 제한사항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그레옹 남작의 초기 구상에 포함되지 않은 40m<sup>2</sup> 규모의 주점이 허가되었다는 점이다. 일종의 위락 및 휴게시설로 사용될 이 건물은, 전시 겸 상업시설로서 인천 제물포 길의 재현에 있어 새로이 포함된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7)Ibid., pp.194-195. 1899년 6월 1일자 공문(개발총국건축소장 → 박람회 개발총국장).

38)Ibid., p.264. 1899년 6월 15일자 문서(그레옹 남작과 프랑스 통상성장관 간의 협약). 「제1항(협약의 목적): 프랑스는 그레옹 남작(Baron Delort de Gleon)에게 개인 자격으로 조직위원회가 정한 공간을 양도한다. 이 공간은 박람회 부지 내에 확보되며, 그리고 한국관에서 전시회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 이용된다. 이 박람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하나는 「공식적인 부분」, 다른 하나는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을 위한 것이다.」

39)Ibid., p.265. 「제2항(임차공간): 대지면적은 1,368m<sup>2</sup>이며, 배치도의 번호 903호는 「공식적인 부분」에, 465호는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에 할당된다. 「공식적인 부분」은 한국건축양식의 커다란 건물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는 정부의 수집품, 현대적인 것과 고전적인 예술품들 그리고 농업, 광업, 산업, 상업에 관련된 모든 생산품들이 전시된다.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에는 인천 제물포에 있는 하나의 길을 표현하고 있다. 그 길에 있는 집들과 건물들에는, 대중들이 통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든 생산품들을 팔고 있는 실제 토착민의 가족들이, 노점 상인들과 야외 곡예사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 기념식과 축제는 이 한국의 거리를 활기 있게 할 것이다. 그레옹 남작에게 최대 40m<sup>2</sup>의 공간에 술집 하나를 세우는 것을 허가한다. 박람회의 다른 임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축제의 시간계획은 총재위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재위원은 필요할 경우 이 계획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

40)Ibid., pp.265-268. 그 밖에 협약서에는, 제3항(전체계획), 제4항(공사의 진행), 제5항(안전상의 조치), 제6항(토지의 개발), 제7항(입장료), 제8항(보증금), 제9항(사용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3.3. 그레옹의 이집트관(1889)과 「한국관」에의 영향

#### (1) 그레옹의 이집트관(1889)의 주요 구성

상기 그레옹 남작과 박람회 개발총국장과의 협약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한국관」의 전시는 매우 역동적인 계획안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조계지가 있던 당시 인천 제물포의 조선인 거리의 모습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전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관」의 전시 구성은 이미 11년 전에 그레옹 남작이 시도했던 동일한 전시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레옹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이집트관의 건립, 운영을 맡았을 때, 수도 카이로의 골목길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89년 파리 박람회 이집트관의 건립 및 운영 역시 대부분 프랑스 측에 의해 이루어졌는데<sup>41)</sup>, 이때도 그레옹 남작은 이집트관의 건축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전체계획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2)</sup>

당시 그레옹 남작에 의해 건축된 이집트 카이로의 골목길 구성을 보여주는 사진기록에 의하면<sup>43)</sup>, 카이로의 실제골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혼돈스러운 도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에는 상점과 노점상, 그리고 이집트 산 당나귀가 짐을 싣고 거리를 오고가는 모습과 이집트인들이 당나귀를 부리며 걷고 있는 모습 등 실제의 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건축물의 경우도 실제 도시의 무질서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페인트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지저분함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의 기록에도 1889년 박람회에 전시된 카이로의 골목길의 구성이 이집트 카이로 시의 거리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건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sup>44)</sup> <사진 2>

결국, 그레옹의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구상에 있어서 인천 제물포의 조선전통식 골목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상기 1889년의 이집트관에서 그레옹 남작이 카이로의 골목길을 재현했던 것과 거의 같은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집트관 건축의 경험에 근거하여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41)Timothy Mitchell, *Colonising Egyp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p.1. 당시 박람회 이집트관은 그레옹에 의해 카이로의 골목길, 이집트의 전통도시주택, 그리고 모스크 등이 건축되어 전시되었다.

42)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중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212-213. 1900년 2월 1일자 공문(무관 비달 소령 → 프랑스 국방성 장관). 당시 비달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레옹씨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지부의 모든 경비를 대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중략) (당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상당한 경비가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43)Timothy Mitchell, Op. Cit., p.3.

44)Ibid., p.1. 당시 그레옹 남작은 이집트 현지에서 원주민을 데려오기도 했으며, 박람회 기간 중에는 일부 프랑스인들에게 이집트인의 옷을 입혀 거리를 활보하도록 했다. 또한, 이집트에서 직접 당나귀를 수입하여 짐을 싣고 운반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그레옹 남작의 적극적인 의도 하에 이집트관이 구성, 전시되었다.





<사진 2> 그레옹 남작의 1889년 파리박람회 카이로 골목길의 재현

## (2) 그레옹의 이집트관(1889)의 설계이념과 그 영향

그러나, 그레옹의 이집트관(1889)은 당시 파리박람회를 방문하여 자국의 파빌리온을 보았던 이집트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sup>45)</sup> 특히, 모스크를 모방한 파빌리온이 커피숍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이집트의 신성한 모스크의 형태가 카이로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던 건물들의 주요 양식으로 사용되었던 것, 그리고 의도적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카이로 골목길을 구성한 것 등이 이집트 대표단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외국관은 상당부분 개최국의 자금과 지원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식민지 전시관은 다분히 개최국의 식민지에 대한 선입관이 크게 반영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민지국의 전근대적인 상황에 대한 우월적 호기심과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889년 당시 이집트인들이 그레옹 남작이 건축한 이집트관, 특히 카이로의 골목길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방식에 크게 당혹감과 울분을 느꼈던 것은 그 구성방식이 매우 상업적이었으며<sup>46)</sup>, 이집트의 고유문화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격하(degradation)'<sup>47)</sup>하고 있었던 것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5) R.N. Crus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Hellas* 6(1897), p.351; Muhammad Amin Fikri, *Irshad al-alibba'ila Urubba, Cairo, 1892*, p.128. 1889년 여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8회국제 동방회의(the Eigh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던 이집트 대표단은 당시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박람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국의 전시관을 보고 심한 혐오감을 느꼈으며, 유럽을 여행하는 과정 내내 자신들이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로써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46) Timothy Mitchell, *Op. Cit.*, p.1. 그레옹 남작은 당시 카이로 골목길을 구성하고서 이집트산 당나귀를 배치하여 관람자들에게 당나귀를 타고 골목을 왕복하는데 1프랑씩을 받았다. 또한, 그레옹 남작은 이집트의 신성한 모스크를 찻집으로 사용하는 등 이집트 문화를 재현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였다.

47) *Ibid.*, pp.7-8. 당시, 카이로 골목길을 정확히 재현하는 등의 전시방식은 1889년 파리박람회 식민지관의 구성에 있어 하나의 주요 특징이었다. 이러한 재현방식의 배후에는 식민지국의 문화에 대한 프랑스 측의 호기심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주체가 객체를 주도적으로 관찰한다는 권력관계가 전시방식에 표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식민지관의 정확한 재현 그 자체는 당해국의 문화를 문화로써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전시물로 '격하(degradation)' 하는 행위로서 평가되고 있다.

결국, 그레옹 남작이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건립에 있어서 인천 제물포의 변화하고 역동적인 골목길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은, 1889년 이집트관의 카이로 골목길을 재현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과 목적으로 전시관을 구성하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레옹 남작이 계획한 「한국관」의 두 번째 부분인 “한국의 활기에 넘치는 골목, 즉 제물포에 있는 길의 재현” 방식에 대해 제안했던 사항을 다시 살펴보면, “그 길에는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집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수공업 생산품을 팔기도 하며, 북적거리는 찻집과 노점상, 그리고 광대들, 기타 등등 매우 다양하고 이국적이며 전형적인 한국의 전통 주민들로 차있는 활기찬 길”로서, 이 제물포 길의 재현을 통해서 “여러 행사로 가득 찬 한국인들의 생활을 다양한 장식물을 통해 매우 빈번하게 열리는 축제를 재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축제들을 위하여 “전시관의 모습을 길 형태로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레옹 남작이 1889년 이집트관의 카이로 골목길의 재현 때와 거의 동일한 목적과 방법으로 「한국관」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여전히 ‘재현’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적어도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상업적 이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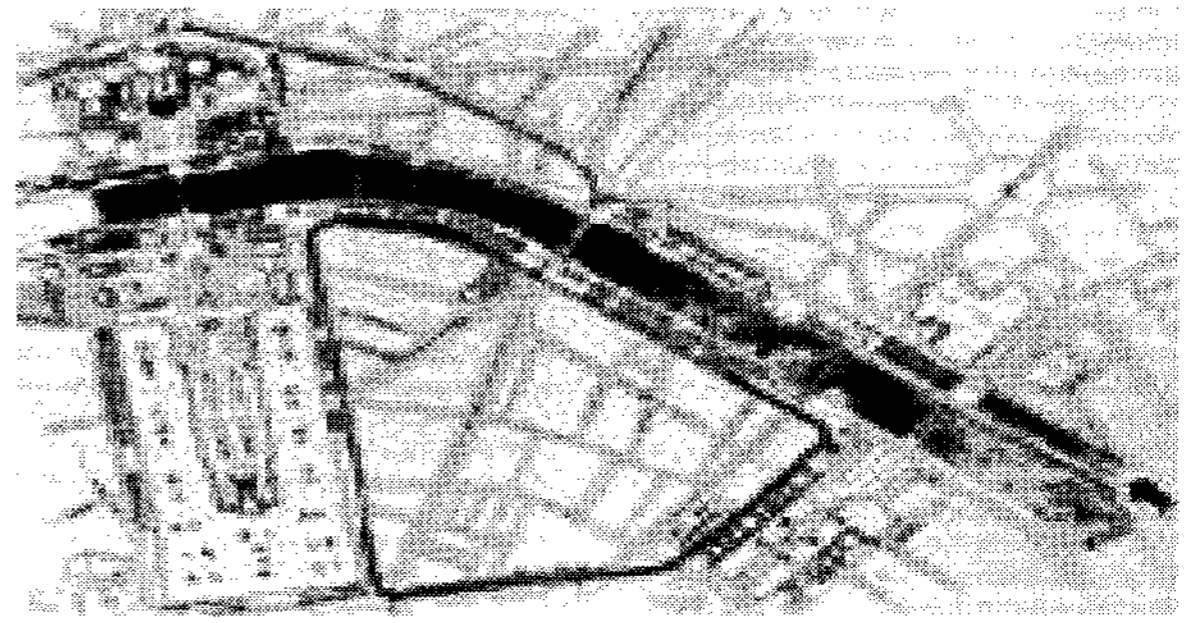
<사진 3> 1890년대 후반의 인천 제물포 조선전통가로

이윽고 그레옹 남작은 1899년 봄 무렵 「한국관」의 전시를 위한 수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보좌원인 알폰소 트레몰레(Alphonse Tremoulet)<sup>48)</sup>를 한국으로 파견한다. 당시, 트레몰레는 「한국관」 구역에서 사용될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구입하였으며, 전시관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장식품은 물론, 파리의 대중들 앞에서 인천 제물포 골목길에서 상행위를 재현할 현지 조선인들도 물색하였다.<sup>49)</sup> 이렇게 하여 「한국

48) Daniel Kane, *Op. Cit.*, pp.55-56. 알폰소 트레몰레는 프랑스-프러시아 전쟁시 전장에서 출납계원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인도차이나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하급관리로서 봉직했던 실무자였다. 그는 당시 54세의 나이로 총무대원 그레옹 남작의 보좌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899년 봄 서울에 도착하여 그레옹의 주문에 따라 「한국관」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해 갔다.

49) *Archives du 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Nouvelle Serie/ Coree/ Travaux publics/ Mines/ 1897-1917*, 10 August 1901(Colin de

관」 전시를 위한 그레옹 남작 측의 기본적인 업무가 일단락되었으며, 1899년 6월 1일 그레옹이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도면 일체가 박람회 개발총국장에 의해 허가됨으로써, 「한국관」을 위해 할당된 부지에 전시관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시관 공사는 1899년 여름에 시작되었으며, 그레옹이 1889년 파리박람회에서 이집트관을 건축한지 10년 만에 거의 동일한 구성의 「한국관」 전시구역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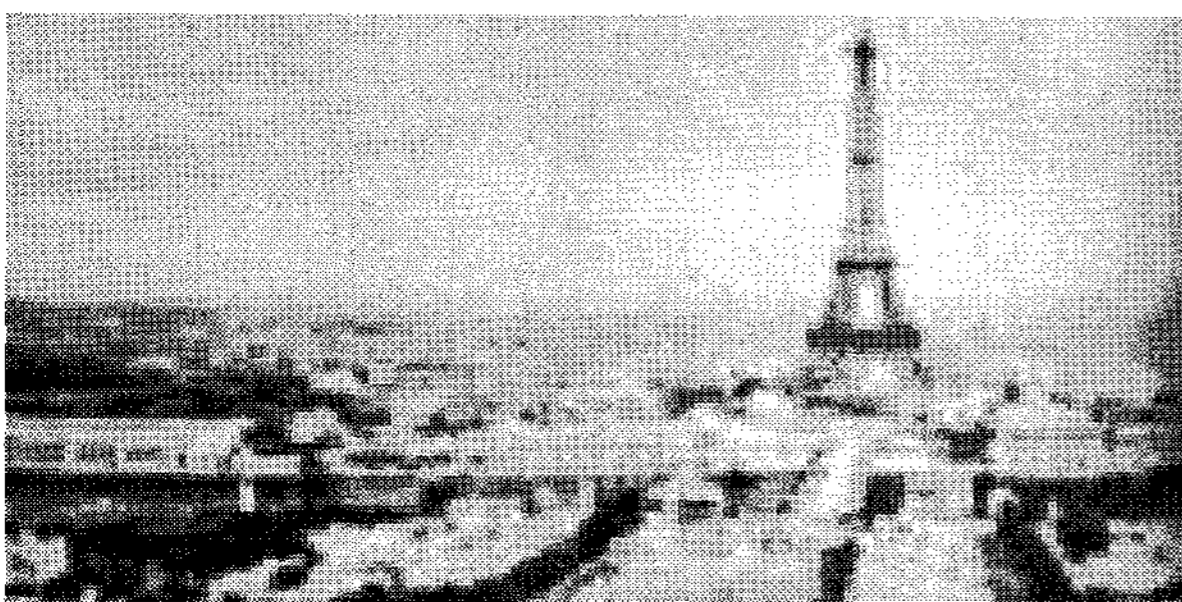


<사진 5> 1900년 파리박람회 회장 도면

#### 4. 그레옹의 「한국관」의 주요 건축적 특성

##### 4.1. 1900년 파리박람회 회장과 「한국관」의 부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회장은 에펠탑을 포함한 샹 드 마르스지구, 트로카텔로 궁전 앞 정원의 트로카텔로 지구, 에스프라나이드 드 장발리드 지구, 뽀티 팔레와 그랑 팔레의 샹젤리제 지구, 세느 강 좌안(左岸)의 외국관 지구, 세느 강 우안(右岸)의 국제회의장과 원예장 등의 파리가(街) 지구로 구성되었다.<sup>50)</sup> 총 대지면적은 108만㎡, 건평 54만㎡로 당시까지 파리 만국박람회 중 최대 규모의 것이었다. 또한 파리 중심에서 약 8km 떨어진 반 센느 공원에도 부속관이 세워졌다. 이전 박람회에 비해, 1900년에는 참가국이 크게 늘어나 회장 면적도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세느 강 좌안, 샹젤리제의 일부, 에스프라나이드 데 샹 발리드를 더 추가하였다. 또한, 샹젤리제에 건축된 기존의 공업관과 파리전시관을 철거하고, 영구적인 건축물로서 그랑 팔레, 뽀티 팔레 등의 미술관을 건설했으며, 이 두 건물 사이에 도로를 내고 대안(對岸)인 앙발리드지구로 확장시키기 위해 알렉산도르 3세 다리를 새롭게 건설했다. 이렇게 회장이 여러 곳에 점재해 있었기 때문에 세느강 좌안의 만국가(街)와 우안의 파리가(街) 사이에 앙발리드 다리 밑 그리고 아르마 다리 위, 또는 육해군 중앙 부근의 3개소에 가교(假橋)를 신설하기도 했다. 한편, 정문은 파리의 변화가에 가까운 콩코드 광장을 향해 설치되었으며, 입구는 각 회장 합계 36개소에 이르고 있다.<sup>51)</sup><사진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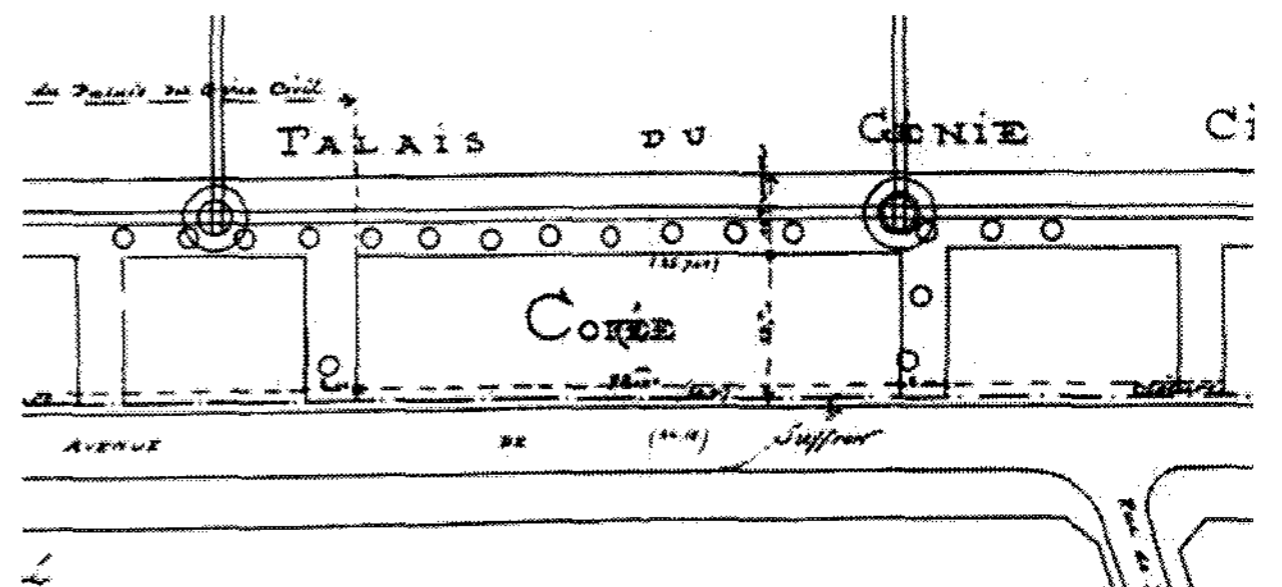


<사진 4> 1900년 파리박람회 회장 전경

전시관 건축양식은 당시의 아르누보양식이 대다수의 파빌리온에 채용되었으며, 주요 건축물의 경우 고전주의의 절충양식이 사용되었다. 당시 파빌리온 수는 주최국의 공식 파빌리온 36관과, 약 100개의 프랑스 관 및 75개의 외국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회장 주변에는 유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하철도 처음 만들어졌다. 또한, 전기기술을 이용한 축음기와 영화도 처음 전시되었으며, 그 밖에 직경 93m의 공중 관람차, 대망원경이 있는 환상관, 에펠 탑 등이 인기를 끌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관람자, 화려한 대소의 파빌리온, 과거 파리의 도시가로의 재현, 외국관의 이국정서 등 1900년 만국박람회는 20세기의 초를 장식하는 호화로운 세기의 향연으로서, 세계의 수도로서의 파리를 과시하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52)</sup>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의 경우, 세느 강 좌안의 외국관 지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중 3개의 부지를 할당받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관이 위치한 부지는 정확히 샹 드 마르스 지구의 쉬프렌 가로(Avenue de Suffren)와 접한 외국가(外國街)에 위치한다. 대지의 면적은 1,368㎡이며, 그 형상은 폭(약 19m)이 상당히 좁은 관계로 횡으로 세장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6> 대지 맞은편으로는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등의 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벨기에 전시관이 있던 오른쪽으로 계단이 있어 그 아래의 세느 강변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다. 강변에서 「한국관」을 바라 볼 경우, 세느 강 전면에 늘어선 외국관들로 인해 「한국관」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구미제국의 공식 전시관 부지가 아니라, 그 부속대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국관」의 부지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사진 7>



<사진 6>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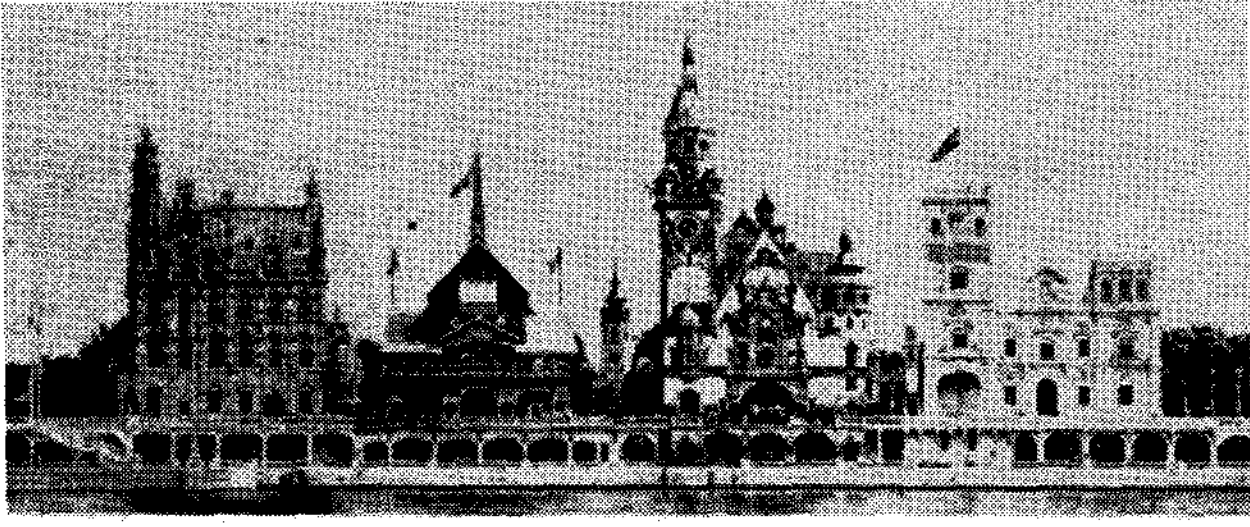
Plancy 공사 → 프랑스 외무성장관)

50)Richard D. Mandell, Paris 1900, the Great World's Fai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pp.9-15.

51)中村惠三, Op. Cit., p.8.

52)Ibid., p.2, p.3, p.8.





<사진 7>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 전면의 외국관 전경

## 4.2.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의 주요 특성

### (1) 「한국관」의 건축모델

그레옹 남작에 의한 설계안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서, 상기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을 모방했다는 거대한 규모의 「공식적인 부분」의 전시관에 대한 도면이 전부이다. 물론, 당시 「한국관」을 위해 배정된 대지가 별도의 도면형식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레옹이 작성한 「한국관」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입면도 형식의 청사진 자료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sup>53)</sup> 이 도면에는 1899년 5월 12일 파리박람회 외국지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사무소 소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레옹이 동년 5월 24일 박람회 총국장에게 제출하기 직전에 작성한 도면임을 확인 할 수 있다.<사진 8>

당시 그레옹이 작성한 상기의 도면은, 부지 전면의 도로(Avenue de Suffren)에 배치된 「공식적인 부분」의 전시관을 그린 것으로, 두 개의 커다란 익부(wing)가 좌우로 설치된 대규모의 전시관이었다. 이곳에는 그레옹 남작이 자신의 보좌관인 A. 트레몰레에게 지시하여 한국에서 수집한 것과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한국 주재 프랑스 공사관이 수집한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레옹 남작이 인천 제물포의 거리를 재현하기 위한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이 아마도 이 건물 옆쪽(제465호 대지)으로 배치될 예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그레옹 남작에 의한 설계도면 중, 평면이 남아있지 않아 전시관의 내부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레옹이 「공식적인 부분」의 전시관 모델로서 언급한 「고종 황제의 여름궁전」이 어떤 건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도면 만을 가지고는 거의 예측하기 어렵다. 도면에 표현된 전시관의 모습이 그 「여름궁전」을 그대로 재현한 커다란 별장 형식이었다는 설명을 보면, 한국의 궁전건축 중의 하나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획안의 입면에서 보이는 2층 구성이나 3층 탑문 등은 한국궁전건축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더욱이, 당시 고종 황제는 자신의 신변안전문제로 인하여 외국 공사관이 밀집해 있던 경운궁을 정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거의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상황에서 고종이 여름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경운궁 내의 전통양식의 전각들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그레옹의 계획안에는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다소 왜곡된 인상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중국풍」에 대한 인상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관」에 대한 기록을 재검토해 보면,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소속 인사들 중, 조선을 직접 방문했던 사람은 그레옹 남작의 보좌원인 A. 트레몰레와 영사 통역관 모리스 쿠랑(재직기간 1890-1892)이 전부였다. 당시, 프랑스 측으로의 한국 건축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 루트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한국관」 건립의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A. 트레몰레에 의한 것과, 다른 하나는 프랑스 공사 플랑시에 의한 루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그레옹 남작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었던 인물은 그의 보좌원 트레몰레였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그레옹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레옹은 파리에서 현지 건축사를 고용하여 「한국관」의 설계를 작성하였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레옹 남작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전통건축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계방식으로는, 모델이 되었던 건축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타난 결과 역시 그러한 추측을 타당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레옹 남작의 입면에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중국풍의 시노와즈리(chinoiserie)의 건축구성과 디테일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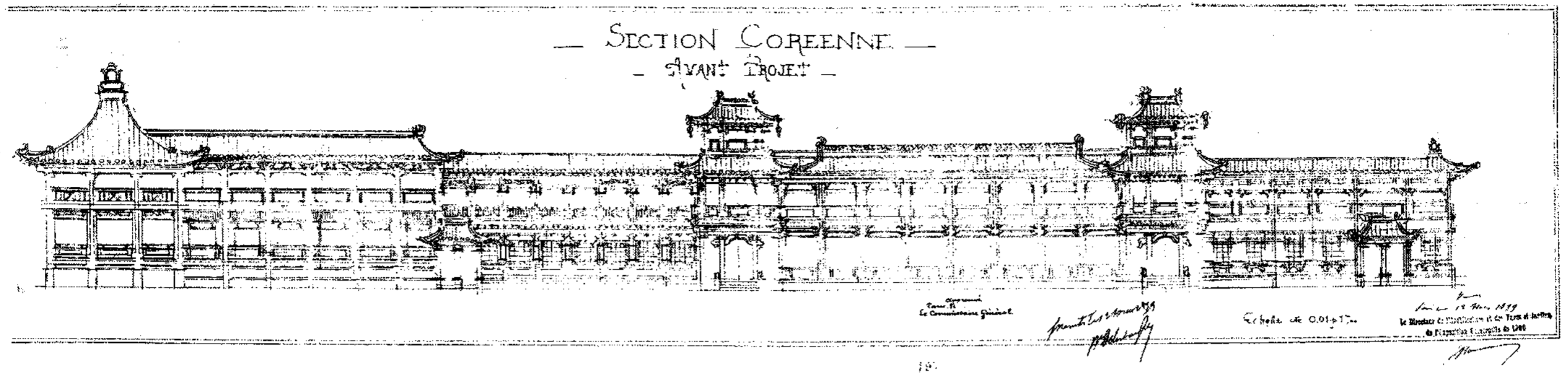
### (2) 「한국관」의 입면구성의 주요 특징

#### 1) 전체 입면구성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구성 중 「공식적인 부분」의 전시관 입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관」의 전체 구성이 「공식적인 부분」과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전자는 고종황제의 「여름별장」을 모방했고, 후자는 인천 제물포의 골목길을 모방하여 계획안이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물은 재현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전시관의 입면 구성을 살펴보면, 기단부와 건물 동체부, 그리고 지붕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로를 면한 전시관의 입구는 총 4개로서, 이 중 중앙부와 우측의 입구는 3층의 탑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좌측부와 중앙부가 각각 익부(wing)로 돌출되어 있으며, 특히 좌측의 루 형식의 지붕은 3층 구성의 탑문과 거의 같은 높이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시관의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지붕

53) 그레옹 남작의 초기계획안에 대한 건축적 자료는 현재까지 입면도 형식의 자료 이외에는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 측 문헌에서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진 8> 1900년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입면도

의 높이가 각각 다르게 처리되어 있어 가로에서 보았을 때 역동적인 지붕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각부 입면구성

### 가. 기단부

주 전시관의 기단부는 건물을 구성하는 각 형식에 따라 누각의 주초, 전면 입구의 계단, 건물 동체의 외부 복도식 기단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즉, 기단은 전시관의 규모와 다양한 건축형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 역시 균일하지 않다. 누각과 건물 동체의 기단 높이가 같은 반면, 입구의 문의 계단은 1층 규모의 입구와 3층 규모의 주출입구가 각각 다른 높이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내부를 보여주는 평면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상과 같은 기단의 구성으로 보아 다양한 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나. 동체부

건물의 동체부는 각각 다른 내부의 기능에 따라, 누각, 전면으로 돌출된 익부, 1층과 3층의 탑문, 그리고 배후의 一자형 건물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동체부로 인해 역동성 있는 건축물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동체부로 구성된 이유는, 횡장한 대지를 따라 길게 배치된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분절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거나, 내부에 기능적으로 다양한 전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동체부의 기능에 따라 창구의 구성 역시 각각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도 내부의 전시기능이 각각 다르게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기둥간격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 구조적으로는 대부분 같은 모듈로 처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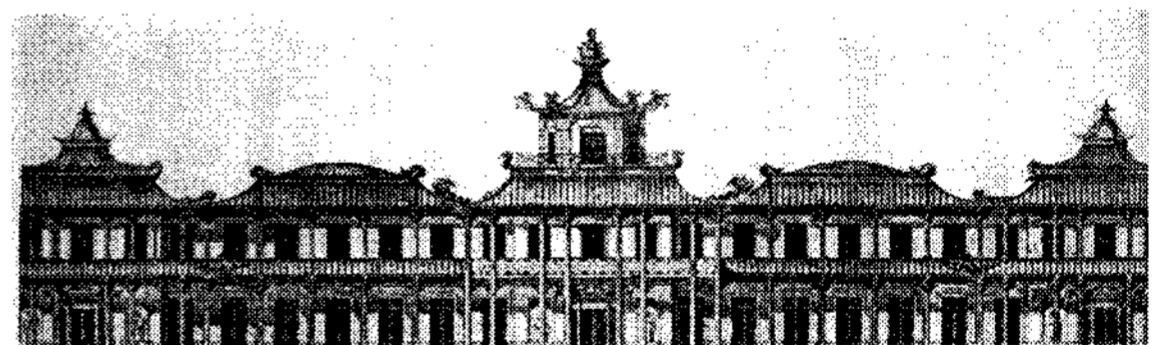
### 다. 지붕부

전체 입면 요소 중, 건물의 인상을 가장 강하게 결정하는 지붕부는, 각각의 전시 기능에 따라, 또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원편의 누각은 지붕의 정상부가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서, 전체 입면에서 지붕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3층의 입구 탑문은 지붕 전체에 걸쳐

장식이 가장 화려하게 설치된 것이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면의 익부와 후면부 건물의 지붕은 일반적인 지붕의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3) 전시관 입면구성의 주요 특징

그러나, 이러한 건물 구성은 그레옹이 언급한 조선의 전통궁전양식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궁전건축에는 3층형식의 탑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층의 누각 형식, 그리고 지붕의 합각부분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등도 찾아볼 수 없어, 다분히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전통건축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건물 각 요소에서 보이는 장식, 특히 지붕과 기둥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물은 조선의 전통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분히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시노와즈리(chinoiserie)<sup>54)</sup>와 유사한 성격의 건축표현방식으로 보이며, 당시 유럽인이 인식하고 있던 중국풍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표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9 -a, b, c>



a. 로얄 파빌리온(1805년, William Porden설계)



b. Chinese Collection 입구 (1842년, 지붕장식)



c. Chinese House at Shugborough (지붕형식)

<사진 9> 시노와즈리 중국풍의 건축

54)Madeleine Jarry, Chinoiserie: Chinese influence on European Decorative Art, 17th and 18th Centuries, New York: Vendome Press, 1981, pp.9-14.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중국풍의 유행으로서, 주로 도자기, 직물, 가구, 건축에 걸쳐 나타난 중국취미를 가리킨다. 당시 유럽에 나타난 chinoiserie는 동양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조하며, 중국풍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일종의 모방으로서 동양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디자인 방식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그레옹 남작이 지닐 수 밖에 없었던 한국전통건축의 재현에 있어서의 한계성과, 둘째는 당시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던 일본 또는 중국 등의 동양풍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상업적 의도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55)</sup>

#### 4.3. 그레옹 남작의 사망과 초기 설계안의 철회

그러나, 그레옹 남작은 박람회를 목전에 둔 1899년 11월 9일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으며, 「한국관」의 건축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sup>56)</sup> 1899년 11월 13일자 프랑스 외무성장관이 플랑시 공사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그레옹 남작의 갑작스런 사망을 통고하고 있으며, 이후 한국정부의 계획을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관」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sup>57)</sup>, 플랑시 공사는 프랑스 외무성장관에게 한국정부의 공사 지속의 의지를 보고하고 있다.<sup>58)</sup> 당시, 한국정부는 프랑스주재 한국 총영사 루리나에게 공사를 위한 최소한도의 필수적인 경비를 확인하였으며, 박람회 한국 측 부위원장인 민영찬이 곧 프랑스로 출발할 것을 통고함으로써, 「한국관」의 건립은 전혀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게 되었다.<sup>59)</sup>

결국, 그레옹 남작의 죽음으로 인해 1899년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한국관」의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그레옹과 박람회 개발국장 간의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 결과 그레옹의 전시관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에 이르며, 이미 건축된 전시관은 철거하기로 결정되었다.<sup>60)</sup> 박람회 총재위원은 1900년 1월 29일 재정국장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관」의 공사가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그

55)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구성원 중, 대한제국 파리주재 총영사 루리나는 동양문화, 특히 중국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의사인 멘느는 프랑스-일본협회의 부회장이었고, 플랑시 공사의 통역관인 모리스 쿠랑은 플랑시 공사와 함께 동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중국통들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한국관의 건립을 위한 프랑스 측 위원회의 공통적인 점은 모두 중국풍에 대해 열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56)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204. 1899년 11월 13일자 공문(프랑스 외무성장관 → 플랑시 공사).

57)구한국외교문서 제19권, 法案1, Op. Cit., pp.586-587. 1899년 11월. 구주 6개국특명전권공사 민영환 파견의 건

58)1900 파리박람회,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Op. Cit., pp.204-205. 1899년 11월 18일자 공문(플랑시 공사 → 프랑스 외무성장관).

59)Ibid., pp.205-206. 1899년 11월 29일자 공문(플랑시 공사 → 프랑스 외무성장관).

60)Ibid., pp.206-208. 1900년 1월 5일, 1900년 1월 12일자 문서(박람회총재위원 → 그레옹 부인).

레옹 남작의 상속자들에게 그레옹에 의해 건축되어 있던 전시관 건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61)</sup> 그 결과, 최초로 한국에 임차된 부지는 그레옹 남작의 사망 이후, 다른 용도의 전시를 위해 회수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서, 그레옹 남작의 초기 계획안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2차 계획안의 작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서, 파리 박람회 「한국관」의 건립은 새로운 건축주체의 등장과 부지의 변경 등 그레옹의 초기계획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게 되며, 전시관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5. 결론

지금까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의 건립과정 및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총무대원인 그레옹 남작에 의한 「한국관」의 건축과정 및 디자인 특징에 대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대한제국정부에 있어서 1900년 파리박람회는, 세계 박람회의 공식적인 첫 참가였으며, 전시관 건립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은 프랑스 측에 의해 시종일관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박람회 「한국관」 관련 프랑스 정부 간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프랑스와 대한제국 측 모두 전시관 건립을 위한 공식적인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주로 프랑스 측 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축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20세기 최초의 공식적인 건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해외에 건립되는 최초의 건축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관」의 건립은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총무대원인 그레옹 남작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의 자금을 사용하여 「한국관」의 건립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레옹은 1889년 파리 박람회 이집트관을 직접 건립했던 인물로서, 당시 「한국관」은 그레옹 남작의 1889년 이집트관의 구성에 기초하여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관」은 당시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전시관으로서, 전적으로 외국인의

61)Ibid., pp.206-208. 1900년 1월 29일자 공문(박람회총재위원 → 박람회재정국장). 이 보고서에는 늦어도 4, 5일 후, 영국에 할당된 베이커 부지에 들어설 전시시설의 여러 자재들이 공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한국관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Ibid, pp.213-214. 1900년 2월 7일자 문서(프랑스통상산업체신성 → 박람회총재위원. <그레옹 남작이 체결한 한국관 계약의 파기에 따른 명령서>). 프랑스 통상부 장관이 박람회 총재위원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그레옹 남작과 관계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그레옹 남작의 사망 이후, 그와 체결한 계약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레옹에 의해 이루어진 채무나 혹은 여러 비용 등 행정당국에 지불된 금액들을 포기할 것, 그리고 지체 없이 이미 세워진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부지를 본래의 상태로 복구 시킬 것, 그리고 그레옹 남작이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면제시키는 것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타 외국인 건축가들의 디자인 방식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레옹의 「한국관」은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주전시관 구역인 「공식적인 부분」과, 다른 하나는 인천 제물포의 전통 골목길을 재현하는 「흥미위주의 토속적인 부분」이었다. 우선, 제물포 골목길의 재현은, 그레옹 남작의 1889년 이집트관의 카이로 골목길의 구성과 거의 동일한 테마로서, 선진 유럽도시에 제3세계의 전근대적인 도시구성 또는 생활방식의 재현이라는 다분히 서구인의 우월적 호기심과 상업적인 시각이 결합되어 반영된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박람회의 공통적인 인식으로서, 1900년 파리박람회 「한국관」의 건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그레옹의 「공식적인 부분」의 「한국관」은, 구체적인 건축도면(입면도)이 남아있어 당시의 계획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관 건물은 할당된 대지를 따라 전면에 배치되었으며, 두 개의 익부를 지닌 조선전통건축양식의 2층 규모로 상당히 거대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주 전시관 또한 재현을 위한 디자인 모델이 있었는데, 고종 황제의 「여름별장」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종황제가 사용했던 전통양식의 전각들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레옹의 도면과 유사한 사례는 거의 찾지 못하였으며, 이는 그레옹이 조선전통건축을 중국풍(chinoiserie)과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디자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당시 그레옹의 조선전통건축에 대한 미경험, 그리고 프랑스 측 건축위원회 인물들의 중국풍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특히 계획안에서 볼 수 있는 지붕의 구성이나 형상, 장식 등이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시노와즈리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여기에 그레옹 남작이 중요시했던 상업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조선전통건축의 왜곡이 심화되었다고 분석된다. 이것이 바로 그레옹 남작의 「한국관」이 갖는 주요 디자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그레옹 남작의 계획안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건축이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중단되었으며, 이후 「한국관」의 건축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 주요 변화는 건축 주체의 변경이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 측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한제국 측이 전시관 건축의 일정부분을 주도하게 되는 구도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1900년 파리박람회에서 그레옹 남작에 의해 계획된 초기 「한국관」에 대해, 그 건립과정과 디자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한 것으로서, 당시 박람회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전시된 「한국관」과는 다른 건축물임을 밝힌다. 그레옹 남작의 사망 이후 전개되는 새로운 박람회 부지의 결정과 새로운 건축주체의 등장, 그리고 전시관의 새로운 건축

과정과 완성된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관」에 대한 그레옹의 초기안과 완성된 안의 비교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Archives du 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Affaires diverses commerciales, circulaires diverses E27 490 C-D, 1894-1901.
2. Archives Nationales de France, Paris. F/12/4224, F/12/4357.
3. Bibliotheque Nationale, Fol V 4222.
4. Daniel Kane, Display at Empire's End: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00 Paris Universal Exposition, i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4. No.2. 2004.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5. Kyungdon Jin, Mina Park, A Literature Study on the Korean Pavilion at Paris 1900 Exposition Universelle, in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5th October 2006. Daegu.
6. Madeleine Jarry, Chinoiserie: Chinese influence on European Decorative Art, 17th and 18th Centuries, New York: Vendome Press, 1981.
7. Patrick Conner, Oriental Architecture in the West,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79.
8. Paul Gers, 1900. Corbeil: E. Crete.
9. Richard D. Mandell, Paris 1900, the Great World's Fai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7.
10. Timothy Mitchell, *Colonising Egyp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11. 中村惠三, 1900年パリ万国博覽會の建築, 足利工業大學出版, 1987年.
12. 吉田光邦, 編 図説万国博覽會, 思文閣出版, 1993年.
13. 日本農商務省編, 千九百年巴里万国博覽會臨時博覽會事務局報告書, 1902年.
14. 고종순종실록, 고종 30년(1893년) 1월24일자.
15. 구한국의교문서 제19권, 法案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6. 한성순보, 1884년2월21일자(음력), 제15호.
17. 한불관계자료-주불공사·파리박람회·홍종우(한국근대사자료집성4), 국사편찬위원회, 2001.
18. 김영나, 서양과의 첫 만남,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19. 변종화, 1883년의 한국사절단의 보스턴 방문과 한미과학기술 교류의 발단, 한국과학사학회지(제4권제1호), 1982년 9월.
20.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 서해문집, 2004.
21. 이민식, 콜럼비아 세계박람회 조선전시실에 관한 연구, 콜럼비아 세계박람회와 한국, 백산자료원, 2006.

<접수 : 2008. 4. 29>